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
실지로 한 새사람을 갖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

성경: 율 1:4, 3:11, 엡 1:3-6, 2:15, 4:22-24, 미 5:2, 계 19:7-9

I.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역사(歷史), 곧 사람의 역사인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가 있다. 전자는 밖의 껍질과 같고, 후자는 껍질 속의 핵과 같다 — 비교 율 1:4.

A.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1. 우리는 영원 과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람과의 연결 안에 있기 위한 준비였다.

a. 신성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는 일을 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며, 사람을 그분의 표현으로 연기를 원하신다 — 엡 3:9-10, 1:10, 창 1:26, 2:9.

b.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회의를 여시어, 그리스도의 중대한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셨다 — 행 2:23.

c.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위격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의 그분의 '계속적인 나아오심'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 미 5:2.

d.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믿는 이들을 축복하셨다 — 엡 1:3-6.

2.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 되심으로 시작해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분의 과정으로 계속되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은 이러한 과정들을 사람의 줄들, 사랑의 끈들이라고 말한다.

a. 신성한 역사인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사람이신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하여 새사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성취인 위대한 하나님-사람,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시키시고 연합시키셨으며, 그분의 인성 안에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다.

c.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대속하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리적인 구속으로서, 옛 창조물을 종결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였다(요 1:29).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구속하셨고(히 2:9, 골 1:20),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새사람을 창조(잉태)하셨으며(엡 2:15),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서부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요 12:24, 19:34, 눅 12:49-50).

d.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행 13:33, 롬 1:4, 8:29),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며(고전 15:45하),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자 한 새사람인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벧전 1:3, 골 3:10-11).

e.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강림하셔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한 새사람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 율 2:28-32, 행 2:1-4, 16-21.

- B. 이와 같이, 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또한 신성한 역사, 곧 외적인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비밀의 내재적인 역사의 일부이다. 신성한 역사의 이 부분의 끝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셔서(골 1:4, 3:11)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이다.
- C.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일 것이다.

II. 베드로(고기 잡는 사역)와 바울(건축하는 사역)과 요한(보수하는 사역)에게서, 우리는 한 새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볼 수 있다.

- A. 하나님은 오순절 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많은 유대인 믿는 이들을 이끌어 오셨다(행 2:5-11). 더 나아가 고넬료는 기도 중에 이상을 받았고(10:30) 베드로 또한 기도 중에 이상을 받았는데(17, 19절), 이것을 통해 한 새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이방인들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움직임(9하-14, 27-29절)이 수행되었다.
- B.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을 창조하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음을 밝혀 준다(비교 4:22-24).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고 말하며,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새사람 안에서 전혀 입지가 없다고 말한다.
- C.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셨다’고 말한다(계 5:9). 구속받은 이 사람들은 한 새사람인 교회를 구성한다. 요한을 통해 우리는 또한 교회들이 금등잔대들이며(계 1:11-12), 최종적으로 이 등잔대들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본다. 등잔대들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민족들 간의 어떤 차이도 볼 수 없다.
- D.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영을 마심으로써(고전 12:13)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럴 때 우리는 실지로 한 새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엡 4:22-24).

III. 신성한 역사에는 새 창조물, 곧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역사와 새 완결을 가진 새사람이 있다 — 영한 동번 찬송가 16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1장), 겔 36:26, 고후 3:16, 마 5:8, 딤후 3:5.

- A. 사람 안에서의 신성한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하여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거쳐,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키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심과 영광스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한 새사람의 완전한 실재 안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신부로 만드신다 — 엡 4:22-24, 롬 5:10, 계 19:7-9.
- B.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간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1. 우리는 모두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다. 이제 이 둘, 곧 하나님과 우리는 한 역사, 신성한 역사를 갖고 있다.
 2.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분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엡 2:14-17, 6:15, 비교 마 24:14), 이럴 때 우리는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어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될 수 있다.